

어린이 책꽂이

▲내친구 까까머리=동자승 광덕이와 유치원생 민이의 만남과 우정을 통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일깨운다. 불교의 화려한 색채와 절집의 온화한 아름다움을 따뜻한 그림으로 그려냈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기억을 가져온 아이=제3회 마해송 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꼬마무당을 등장시켜 기억과 망각에 대해 풀어쓴 판타지 동화. 기억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건망증과 착각, 기억상실에 이르기까지 기억의 비밀들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우주에서 살아남기 1=극한 상황을 처한 평범한 주인공들이 각종 서바이벌 상식과 자연과학 지식을 이용해 생존을 건 모험을 벌인다. 독특한 우주 비행사 훈련을 거친 주인공이 우주에서 펼쳐지는 서바이벌 모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우주를 상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의 도전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이세움·8천500원>

▲열두 달 지구 이야기=자연 속에 숨은 놀라운 법칙과 질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떤 별인지, 오랫동안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풀빛·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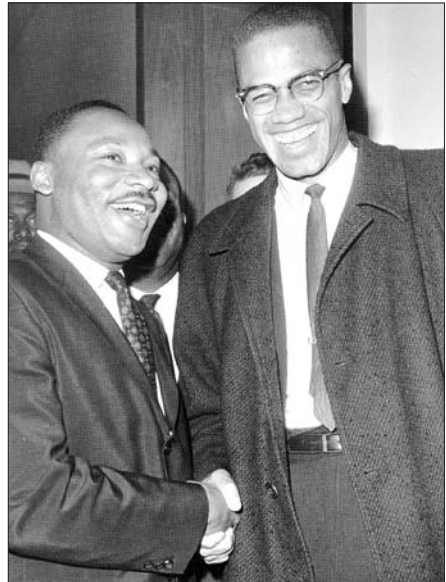
▲생명을 꿈꾸는 씨앗=올록볼록 신기하게 생긴 40여가지의 씨앗들이 생명을 틔우기까지 똑똑하고 재미넘치는 생존비밀들이 소개돼 있다. 씨앗의 모습과 이름, 그 씨앗이 자라면 어떤 식물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혁명가들의 연설은 짧지만 울림이 있다

혁명을 꿈꾼 시대 장석준 지음

대부분의 '우리'들은 두 세기에 걸쳐 살고 있다. 20세기의 터널을 지나온 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기를 '가깝고도 친숙한 과거'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20세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캐묻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진보 학자 장석준씨가 쓴 '혁명을 꿈꾼 시대'는 20세기를 바로 봐야만 21세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20세기로부터 핵무기와 환경오염, 빈곤 등 '부채'를 떠안은 동시에 2002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 베를린 거



미국의 대표적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왼쪽)과 말콤 X.



유엔에서 연설 중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 게바라·마틴 루터 킹·차베스... 진보주의자 24명 명연설 재구성

리로 몰려나온 시위대의 로마 특선부르크 사진 등을 통해 '희망'도 물려받았다고 말한다. 저자는 20세기의 한 가운데서 혁명을 꿈꾸었던 24명의 연설을 재구성했다. 의인화한 '20세기'와 '21세기'의 대화는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21세기'는 현역에서 물러난 선배 '20세기'에게 찾아가 '선배의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신이 남겨준 숙제는 무엇이며, 그 숙제들을 풀 수 있는 살마리는 또 무엇인가'고 묻는다. 저자는 전쟁, 자본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파시즘, 남성 중심 사회, 자본의 세계화 등 7개 주제로 나눠 진보주의자들의 명연설을 소개한다. 저자가 나는 주제들은 20세기가 21세기에 남긴 숙제이기도 하다. <살림·1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위인전의 단골 손님 헬렌 켈러(1880~1968)는 누구보다 열렬한 사회주의자이자 반전주의자였다. 그녀는 1915년 뉴욕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노동포럼'의 반전 강연회에 참가해 이렇게 말한다. "저들은 조국 방위를, 무장을 그리고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자본가들에게는 '살인 무기를 판매하는' 이 거래가 곧 새로운 시장창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주장했다.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1928~1967)는 1965년 알제리에서 열린 아프리카-아시아 연대기구의 경제 세미나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저발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뭔가 이익을 챙기려 드는 소련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안으로 반제국주의의 불복을 건설하자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1929~1968)은 1963년 8월 '내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로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 모인 21만 명의 군중을 감동시켰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1954~)는 지난 2005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자본주의는 노예제도"라며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국가에 일침을 가했다. 이 밖에 핵무기의 잔인성을 꼬집은 버트런드 러셀, 러시아혁명의 위대함을 역설한 레온 트로츠키, 비폭력 저항의 신념을 실천한 모한다스 간디, 파시즘의 야만성을 고발한 안토니오 그람시 등 혁명을 꿈꾼 이들의 연설은 짧지만 깊고도 긴 울림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살림·1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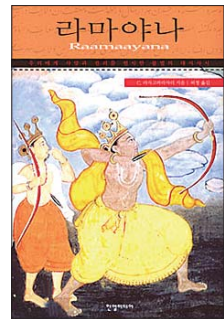
C.라자지 '라마야나'

"남은 값지만 아아 나는 남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시 '남의 침묵'에서 그렇게 노래했다. 남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녕 떠나보내서는 아니 될 그 어떤 절대적 사람의 표상이라 나는 그 남을 10억의 나라 인도가 불후의 명작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서사시 '라마야나'(한말미디어)에서 만난다. 고요하고 신비스러운 명상을 자극하는 '라마야나(라마가 걸 어간 길)'. 나는 이 '영혼의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진정한 남의 모습을 가까스로 엿보곤 한다.

내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을 불교용으로 표현하면 '연기법'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연기법은 한말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나는 너 그리고 너는 바로 나"라는 의미로 모든 존재는 상대적인 존재 혹은 '하나'라는 것인데 서로간의 '인연'으로 배움이 닿아있다는 말이다. 우리를 인간은 물론이고 우주만물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생명관계라는 뜻이다.

지은이는 C. 라자지다. 그는 인도시인의 원조라고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발미키의 대서사시 '라마야나'를 현대문학작품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셈이다. 이 책은 힌두교의 3대 경전 중 하나로 인류의 빛나는 정신문화유산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C.라자지는 1878년 벵골주에서 태어나 1972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 정치가, 사상가이며 인도정신과 인도문

인간의 진리와 사랑



학을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문학자이다. 그 이름처럼 오늘날도 '위대한 영혼'으로 추앙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절친한 친구인 인도독립운동의 동지였던 그는 영국의 식민지시절에는 열렬한 자유투사이며 정신적 지도자였다. 인도인 최초의 총독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한 그는 인도 근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위인이다.

그가 살았던 당대의 젊은이들과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재생성한 저술은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샤드', '마하바라타' 등이다. 특히 '라마야나'는 인도인들이 영원히 자랑하고자 하는 고대 인도의 종교적 경전이요 불멸의 문학작품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대담한 상상력을 전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마치 폭포수처럼 솟아나게 쏟아낸다.

'인간의 사랑과 진리의 법(다르마)'을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작품은 역시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와 함께 오늘날 인도인들의 역사와 정치, 사회와 문화, 힌두교·불교·자이나교 등 무려 12가지의 넓은 종교와 사상을 이해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가이드북이다.

"라마야나"를 읽거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제된다고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부간의 연정, 부자간의 끈끈한 정, 형제간의 우애, 친구간의 우정,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적 인물이랄 수 있는 이 책의 주인공 '라마'를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그 사람의 죄와 슬픔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말했다." ('라마야나' 중에서)

가정의 달이요 부처님께서 오신 달이기도 하는 이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인 5월. 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 또한 앞으로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을 믿으며 이 책을 권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 속에는 우리들 모두가 지켜야 할 영원한 진리와 사랑의 세계가 고요히 빛을 발하며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준태 (시인)



인문학 통해 인간과 삶 고민

세대공감 달인 시리즈 고미숙 외 지음

언제부터가 '연구공간 수유+너머'는 인문학의 대중화와 관련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체가 되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새롭게 해석해 관심을 모은 고미숙씨를 비롯, 회원들은 자신들의 공부 뿐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진들이 펴낸 '세대 공감 달인 시리즈'는 '인문학 인생역전 프로젝트'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소통이 단절된 세대가 '인문학'이라는 나침반을 통해 인간과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미숙씨가 펴낸 '공부의 달인-호모 콩푸스'는 공부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스승을 만나고 벗과 더불어 배우고, 독서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이야기한다. 그밖에 '놀이의 달인-호모 루텐스'(한경애 지), '예술의 달인-호모 아르텍스'(채운 지), '언어의 달인-호모 로렌스'(윤세진 지·'신국어독본' 개정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린비·각권 값 1만2천원 내외>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오쿠다가 펼치는 패러디 세상

면장선거 오쿠다 히데오 지음

'공중그네', '남쪽으로 튀어'로 잘 알려진 일본 소설가 오쿠다 히데오의 최근작 '면장선거'가 국내 번역·출간됐다. 저자에게 제131회 노키카상을 안긴 '인 더 풀'과 베스트셀러 '공중그네'에 이은 연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 더 풀'이 고교생, 셀러맨 등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다뤘고, '공중그네'가 야쿠자, 곡예사 등 특정 분야의 인물을 설정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거대 기업인 신문사 회장, 인기 배우 등 유명인을 환자로 내세웠다. 주인공은 역시 신경정신과 의사인 이라부와 간호사 마유미. 저자는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는 환자를 등장시켜 과감하게 패러디를 시도한다. '구단주'의 주인공 다나베 미쓰오는 요미우리 신문사 대표 와타나베 쓰네테오가, '안종만'의 안포 다카야키는 '일본의 빌게이츠'로 불리는 호리에 다카후미가, '카리사마 직업'의 시로키 가오루는 영화 '실락원'의 여주인공 구로키 히토미가 각각 모델이다. '면장선거'는 가상의 공간에서 돈과 비방이 오가는 선거판을 풍자했다. <은행나무·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Modish Gallery Open Sale advertisement. Features furniture sets like '오페라 침실세트' (Opera Bedroom Set) for 1,400,000 and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Agnese 2+2 Family Sofa) for 1,600,000. Includes a table with prices for beds and sofas.

Dume 21st Century Food Culture advertisement. Promotes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15 years of food service experience, serving the care and taste of a mother). Lists products like kimchi and food systems.